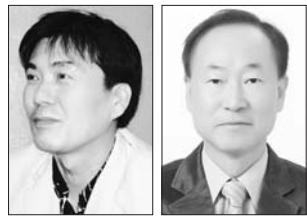


가람 이병기 고향에 문학관 개관

총사업비 38억원 투입
선생 업적·정신 기려
문학계 등 행사 풍성



본상 오중문씨 신인상 이택희씨

현대시조의 아버지로 불리는 국문학계의 큰 별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가람문학관이 개관했다.

익산시(시장 정현을)와 가람문학계 추진위원회(회장 김영규)는 지난 14일 여산면 수우재(가람 생가)에서 가람문학관 개관식을 겸한 '2017 가람문학제'를 개최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익산출신으로 우리 글과 문화를 가꾸고 민족을 사

면적 996㎡, 지상 1층 규모로 올해 10월 사업이 마무리됐다.

가람과 마주할 수 있는 영상실, 이병기 선생의 시조를 음미하는 가람실, 가람의 생애를 되짚는 상설전시실, 체험실, 세미나실, 문인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가람문학관은 정기적인 기획전시와 함께 가람 선생의 다양한 저작을 시·문·교·인·연·구·자·에·제·공·하·고, 가람 선생의 업적과 연계한 현대시조, 가람일기, 한글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가람문학관을 통해 '가람 이병기 콘텐츠'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아가 전문적 학술연구와 가람의 업적

을 구축하고 교육하는 가람학의 견고한 체계 정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7 가람문학제'는 이날 오전 가람시조문학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가람문학관 개관식 및 제37회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제37회 가람시조문학상은 한국시조시인협회 오중문 씨, 제9회 가람시조문학 신인상은 익산교원회 토론회연구회 이택희 씨가 수상했다.

또한 가람문학관 내에서는 제7회 가람이병기 학술대회, 문학관 내외부에서는 제9회 전국가람시조백일장 대회가 개최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 공권력 강화와 단속 경찰관 보호를 목적으로 해상특수기동대 실전 사격대회를 개최했다.

“사격대회 주인공은 나야 나~”

군산해경 해상특수기동대
박승지 순경 '1위' 올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 공권력 강화와 단속 경찰관 보호를 목적으로 해상특수기동대 실전 사격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상특수기동대는 중·대형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며 ‘단속과 진압’을 전담하는 경찰관들로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투입되는 만큼 체력과 사격실적이 우수한 해양경찰 최정예다.

이번 대회는 해상특수기동대원 100여 명이 5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 달간 치러졌으며, 실제 시뮬레이션 사격장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뒀던 팀 높은 점수를 득점한 5명이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전이 치러진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해상에서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바닥이 움직이는 모션플랫폼(Motion-Platform)을 설치한 사격장으로

시뮬레이션 모니터를 통해 해상에서의 각종 상황연출이 가능하다.

또, 본선 경기의 경우 바다낚씨가 나뉘어 낚시 후와 높은 파도 속에서도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에서의 자유를 겨루보는 경기가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사격원은 322명 중 군무하는 박승지 순경(2위 순경 김진진, 3위 경장 이봉효)으로 사격이 신제품에 타격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의 위협을 막는 정밀한 타격을 선보여 사격왕의 명예를 거머쥐었다.

본선경기를 바다에서 직접 참관하고 현장에서 우승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고정된 자세에서도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기란 어려운 일인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눈을 감고 바늘귀를 넣는 것과 같다”며 “그만큼 극한의 집중력과 반복된 훈련만이 정확한 타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 같은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필곤 기자

가천그림그리기 대회 1만2000명 실력 뽐내

**청소년 가을축제 자리매김
내달 7일경 수상자 발표**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교육청, 김병원, 가천대학교 등이 후원한 제3회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가 지난 14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내 유·초·중·고교 학생들과 가족 등 총 1만 2천여명이 참가하여 '행복한 내 고향'이란 주제로 자신들의 그리기 실력을 한껏 뽐내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명실공히 전북도 최대의 청소년 가을축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개회식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이태훈 의료재단 의료원장 등이 참석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라며 학생들에게 직접 도화지를 나눠주고 대회장을 돌며 참가한 학생들과 가족들을 응원했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치부까지 처음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가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적 창작력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초·중·고 구분 /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심사를 거쳐 11월 7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가천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부상이 제공되고 각 부문별로 총 350여명의 시상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군산대아초등학교 총동문회 이지태 사무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전북지역으로 확대 실시된 것에 이어 올해는 유치부를 신설해서 많은 아이들이 대회를 찾았다"며 "전북도 내 청소년들이 즐기는 최고의 가을 축제로 우뚝 선 만큼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 대아초교의 졸업생이자 군산이 배출한 세계적인 의료인인 가천길재단의 이길여 회장이 지난 2014년 후배들을 위해 기증한 '가천이길여도서관'의 건립 후 이어지고 있는 대회로서 그림그리기를 통해 전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고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고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익산 공공하수도 가동 시작

춘포 천서·왕궁 운수지구
지역유입 생활하수 원천 봉쇄
수생태 회복·악취해소 기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춘포 천서·왕궁 운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치고 10월말부터 공공하수도 사용을 개시한다.

이번 사용개시 지역은 춘포면 천서, 쌍정, 오산리 일원과 왕궁면 오수,

구덕리 일원이며, 하수관로 총 44.0km, 맨홀덤펍프장 33개소, 배수설비 815개소등의 공공하수도시설과 개인하수도시설이 해당된다.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익산천으로 유입되던 생활하수를 분류식하수관로를 통해 금강동 익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다. 국비 178억원과 시비 78억원 등 총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 2월 착공해, 만 2년 7개월만인 지난 9월말 완공했다.

그동안 춘포천서와 왕궁지구는 익산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수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생활하수가 지천을 통해 익산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으로 익산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앞으로 수생태환경 회복과 악취해소, 수인성질병 예방이 크게 기대된다. 이 지역은 왕궁 특수지역의 특성상 축사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도 협소하여 공사 중 소음 진동으로 가족들의 스트레스에 의한 사산 등의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때마다 지역 농장주와 협력해 가축 출하시기에 맞춰 공사시기를 조절하는 등 맞춤형 공사를 시행해 공사 중에 겪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하수관거사업으로 개인이 관리하던 정화조 800여개가 폐쇄되어 정화조 청소비 등 연간 5천만원 정도가 절감돼 직접적으로 생활비 부담도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또한 골목길 등 불량도로에 대해 전면 포장으로 주민생활과 정주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시 관계자는 "사용개시 이후 오수받이 등 개인 배수설비는 건물주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쏜다

군산시 총 30여명 선발
1인당 100만원씩 지급
27일까지 시청 방문접수

군산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생이며 시에서는 3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사업장의 영세성

으로 학비 지원이 어렵고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업성적 우수자 등 조예에서 정하고 있는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장학금 신청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와 근로자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청 지역경제과(7층)로 오는 27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gun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454-2762)로 문의하면 된다.

문용득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의 경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산업을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 장학금 지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필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